

“뜨겁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 가득”

영화 ‘리바운드’ 안재홍
부산중앙고 농구부 실화
신임 코치 강양현 역할



영화 ‘리바운드’ /바른손이엔에이 제공

일본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흥행 성공에 이어 국내 고교 농구대회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실화를 그린 영화 ‘리바운드’가 관객을 찾는다. 이 작품은 2012년 해체 위기에 놓였던 부산중앙고 농구부에 공익근무요원 신분의 신임 코치가 부임해오며 6명의 개성 강한 선수들과 좌충우돌, 고군분투했던 기록을 담았다. ‘리바운드’라는 제목처럼 패배 의식이 가득했던 고교 농구부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바뀌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농구부 신임 코치 ‘양현’으로는 배우 안재홍이 나선다. 연예계 농구 최강자로 꼽혀온 2AM 출신의 전진운은 6명의 선수 중 ‘규혁’으로 변신한다. 농구명문 휘문고 농구부였던 신인 배우 김택은 극중 괴력 센터 ‘순규’가 돼 골 밑을 점령한다.

안재홍은 지난 14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뜨거운 이야기와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 많은 영화”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실제 부산중앙고 농구부 신임 코치였던 강양현과 싱크로율을 높이고자 일주일 만에 체중 10kg을 늘린 에피소드를 전했다.

“실제 영상을 보면서 최대한 흡사하게 싱크로율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일주일 동안 10kg 가까이 증량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목표가 있는 증량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멈추기가 어려웠지요. (웃음)”
작품을 연출한 장항준 감독은 실화에 바탕을 둔 작품인 만큼 인물, 배경 등에서 최대한 당시와 근접하게 담아내고자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캐스팅 단계부터 당시 선수들이 착용했던 밴드, 신발, 평상복까지 그 선수들에게서 구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조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촬영 대부분은 실제 부산중앙고 체육관에서 이뤄졌다. 세트장 구성없이 모든 장소를 섭외해 촬영을 마친 것도 이번 작품의 특징 중 하나다. 촬영을 앞두고는 체육관의 문이 새로운 스테

인리스 문으로 바뀌자 이전에 사용했던 문짝을 구해와서 다시 달 정도로 세심함도 기울였다고 장 감독은 전했다.
작품 시나리오는 영화 ‘공작’과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서 몰입감 높은 이야기를 선사한 권성휘 작가가 맡았다.
장 감독과 부부 사이인 김은희 작가는 각색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킹덤’, 드라마 ‘싸인’, ‘시그널’ 등의 대본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내달 5일 개봉하는 ‘리바운드’는 올해 1월 4일 스크린에 올라 최고 흥행 기록을 쓴 ‘슬램덩크’로부터 농구 작품이라는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연합뉴스

“범죄물 남성 캐릭터 참고했죠”

넷플 ‘더글로리’ 김히어라
약물중독자로 강렬한 인상



배우 김히어라 /넷플릭스 제공

“가해자들이 각자 혼자 남겨져 남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가장 잔인하고 현실적인 복수 아닐까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이다. 피해자 문동은 역을 맡은 송혜교의 연기 변신 외에도 가해자들을 연기한 배우들의 열연도 호평받고 있다.

가해자 가운데 이시라를 연기한 김히어라(34)는 약물 중독자의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잘 살려내면서도 다소 수위 높은 장면들을 소화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김히어라는 드라마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생기가 넘쳤다.

그는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 TV 부문 세계 순위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작품의 일원인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면서도 “뭔가 제 미래도 확 펼쳐질 것만 같은 설렘이 든다”며 웃었다.

극 중 이시라는 늘 약에 취해 눈빛에는 초점이 없고, 몸은 축 늘어져 있다. 무리 중 최약체인 최혜정에게 독설을 내뱉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급기야 위태까지 가하며 자멸한다.

김히어라는 육설을 쏟아내고 술, 담배, 약에 절여있는 이시라를 연기하기 위해 범죄물 속 남성 캐릭터들을 참고했다고 했다.

“사라의 성향이나 고양이나 뱀같이 나른하고 앙칼진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캐릭터화되면(굳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육하는 연기는 일부러 검은 세계의 남자들 육을 많이 참고했어요. ‘부당거래’, ‘신세계’ 같은 영화들이요. 약에 취한 연기는 마약이 나오는 미국이나 스페인 드라마, 다큐를 많이 봤어요. 사람마다 증세가 다르다고 해서 ‘사라스럽게’ 표현하려고 했죠.”

김히어라가 ‘사이다’ 복수를 안긴 ‘더 글로리’의 결말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마땅한 벌이 돌아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라나 연진이가 감옥에서 나오고, 혜정이 퇴원한다고 해도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손절당했기 때문에 혼자다”라며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잔인하고 현실적인 복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품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했다. /연합뉴스

‘더 글로리’ 파장...연예계 휩쓰는 학폭 고발

‘피크타임’·‘볼트’ 논란
출연자 사과·하차 잇따라

한국 교육 현장의 ‘뇌관’인 학교폭력을 정면으로 건드린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파장인 걸까. 최근 연예계에는 학폭 논란에 가해자가 사과하고, 피해자의 사연이 주목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인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길호 PD가 최근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리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더 글로리’ 파트 2가 공개된 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당시 고3이었던 안 PD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놀렸다든 이유로 피해자와 친구를 폭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는 안 PD를 포함해 열명에게 2시간 가량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PD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하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타인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줬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비연예인 등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들도 출연진이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JTBC 아이돌 서바이벌 예능 ‘피크타임’은 출연진 김현재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현재는 학교 폭력 논란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제작진은 “단시간 안에 명확하게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하에 김현재 군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힌 바 있다.

MBN 오디션 예능 ‘불타는 트롯맨’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출연자 황영웅이 학교 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프로그램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앞서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 100’에 출연했던 김다영 역시 학교 폭력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제 잘못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KBS 2TV ‘비밀의 여자’ 시청률 10.4%

KBS 2TV 새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가 구박받고 사는 며느리이자 아내의 모습을 내세우며 출발했다.

1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0분 방송된 ‘비밀의 여자’ 첫 회 시청률은 10.4%를 기록했다.

첫 회에서는 YJ그룹 손주며느리인 정겨울(신고은 분)이 시어머니인 차영란(김여령)에게 구박받고 남편 남유진(한기웅)에게 냉대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겨울이 시댁에서 구박과 냉대를 당하는 사이 의문의 남자 서태양(이선호)은 굳은 표정으로 한 노모의 집을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하며 궁금증을 유발했다.

‘비밀의 여자’는 ‘신사와 아가씨’(2021)로



KBS 2TV ‘비밀의 여자’ /KBS 2TV 제공

큰 인기를 끌었던 신창석 PD의 신작으로 남편과 내연녀로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이야기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 뉴스광장 7:0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황금연못	6:00 걸어서 세계 속으로 7:00 해 불만인 아침 1부 8:05 해 불만인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슈퍼맨이 돌아왔다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매너의 게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이 좋아 11:45 꾸러기 식육교실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인블랙박스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6:10 세계대기행 7:00 뽀빠이 뽀빠이 7:15 하프의 친구들 7:45 연마 깨투리 8:00 당당당 유채원 8:20 미니특공대 브이레전즈 9:05 최고다. 호기심 딱지 9:20 시공 10:10 한국의 돌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대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건축탐구 - 집 1:00 글로벌 아바타 찾아 삼만리 2:45 한국의 돌레길 3:35 꾸러기 친사들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퍼피그 5:00 EBS 뉴스 6:00 웅감한 소방차 레이 7:00 순간 포착, 야생 7:30 한국의 돌레길 7: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8:40 세계대기행 9:30 한국기행 9:50 극한직업 10:45 심어즈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55 클래스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7 7:40 한국인의 밥상 8:30 내 눈에 콩깍지 9:00 KBS 뉴스9 10:00 히트 어스 한밤도 10:50 더라이브 11:30 KBS 뉴스라인	6:30 2TV 생생정보 7:50 비밀의 여자 8:30 홍길동전 9:50 연모 11:00 연중 플러스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생방송 영금복권720+ 7:10 매너의 게임 7:40 MBC 뉴스데스크 10:00 실화탐사대 10:00 놀면 뭐하니? 스페셜 11:30 2023 WBC 특집 다큐 속적 2부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수학 없는 수학여행 10:30 꾸러기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6:3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7 7:40 한국인의 밥상 8:30 내 눈에 콩깍지 9:00 KBS 뉴스9 10:00 히트 어스 한밤도 10:50 더라이브 11:30 KBS 뉴스라인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생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3월 16일 (음력 2월 25일)

<p>子 48년생 답답한 일로 고민 생 긴다. 60년생 사랑으로 배울 여라. 72년생 오해 생기지 않 게 연행에 신경 써라. 84년생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p>	<p>辰 52년생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64년생 안전한 투자를 하라. 76년생 격한 운동 보다 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 라. 88년생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라.</p>	<p>申 44년생 매사에 신중하라. 56 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68년생 사랑과 친절은 이자로 돌아온 다. 80년생 아플만큼 성숙해진다.</p>
<p>丑 49년생 응원하고 격려하라. 61년생 정신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라. 73년생 고집을 버리고 융화하라. 85년생 상 대방에게 부드럽게 대하라.</p>	<p>巳 41년생 고민이 해결되는 하루 다. 53년생 좋은 기회는 또 온 다. 65년생 양보하면 얻는 것 이 있다. 77년생 성급함 버리 고 천천히 가라.</p>	<p>酉 45년생 위험한 유혹을 조심하 라. 57년생 마음 급하게 서두 르다 손해 생긴다. 69년생 지 친 심신 휴식으로 풀러라. 81 년생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p>
<p>寅 50년생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마라. 62년생 마음 가는 곳으 로 행하라. 74년생 여러 명이 하는 일은 구설 생긴다. 86년 생 깨끗하게 자신감은 잃지 마라.</p>	<p>午 42년생 지난 것에 미련을 두 지 마라. 54년생 밖으로 나가 기분전환하라. 66년생 대화로 풀면 사이가 예전 같아진다. 78년생 의기투합하라.</p>	<p>戌 46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은 있다. 58년생 겸손으로 나를 낮춰라. 70년생 모든 것은 마 음떡이 나뭇이다. 82년생 기 다려라 좋은 소식이 있다.</p>
<p>卯 51년생 하고자 마음먹으면 뭐 든지 이룬다. 63년생 자신감 을 가지고 도전하라. 75년생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이룬 다. 87년생 복잡한 생각은 떨쳐 버려라.</p>	<p>未 43년생 구설이 있어도 묵묵함 에 지나간다. 55년생 하찮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마라. 67년생 걱정거리 사라지니 세 상 편하다. 79년생 현실에 만족한 하루다.</p>	<p>亥 47년생 타협하라. 59년생 이 성 문제로 고민 생긴다. 71년 생 뒷사람을 공경하라 먹을 복 이 생긴다. 83년생 바라는 대 로 이뤄진다.</p>